

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http://www.mke.go.kr
'11년 5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안전품질정책과 정의식 과장(509-7246), 나기형 팀장(509-7089)	

『상생 품질협력을 위한 2011 Korea CQO Summit』 개최 - 모협력기업 간 품질협력 파트너십 강화기반 구축 -

-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는 5월 26일(목) 강남 리츠칼튼 호텔에서 품질전문가 및 기업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『상생 품질협력을 위한 2011 Korea CQO Summit』을 개최함

* CQO(Chief Quality Officer) : 품질최고 책임자

- 이날 포럼에서는 완제품 제조기업(40개 업체)과 1-2-3차 협력기업(100여 업체)의 품질책임자 및 한국품질학회 등 품질전문가가 모여 상생을 위한 품질협력 실천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,
 - 기업 품질최고책임자들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, 산업현장의 품질애로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
- 이날 포럼에서는 “매력 품질론”으로 품질학계에 널리 알려진 일본의 가노 노리아키 교수의 주제발표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상생 품질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음
- * Kano Noriaki : 카노 품질모델 창시자로 일본 도쿄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, 1997년 일본 국가품질상(데밍상 개인부분) 수상 및 ASQ(미국 품질 협회) Senior 멤버로 활동 중
- 또한, 품질전략 패넬토론에서는 “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품질경영”이란 주제로 포항공대 김광재 교수의 발제가 있었으며, 글로벌 기업의 협력기업 육성전략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음

- 이날 간담회에서 최중경 장관은 최근 부품결함에 의한 크고 작은 리콜사태를 계기로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정부도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
-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는 안전품질 역량강화 기반조성은 기업경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인프라 확충의 중요함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해 업계, 학계, 정부가 함께 협력하기로 함

* 2011년 추진 품질사업

- ① 중소기업에 적합한 안전·품질 매뉴얼 개발·보급
 - 업종별 사고사례가 많은 품목, 소비자 불만이 많은 품목, A/S 빈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, 판매 등 전 주기에 걸쳐 국가별 법규, 환경, 기술수준, 문화 등에 적합한 안전·품질 매뉴얼 개발
 - ② 국가품질상 제도 개선
 - 국가품질상 수상기업은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창출, 안전·품질 평가기준 신설로 안전성 기반의 품질경영 성과를 유도
 - ③ 안전과 연계한 품질분임조 활동 추진
 - 불량감소 원가절감 등 기존 품질분임조 활동에서 안전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환
 - ④ 동반성장을 위한 모·협력기업 간 품질혁신 역량강화 지원
 - 부품 공급망의 품질리스크 관리는 완성품 제조기업의 품질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곤란, 공급망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품질혁신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⑤ 신속한 안전·품질 정보 제공
 - 국내외 품질결함 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사고발생 예방 및 신뢰성을 제고
 - * 기업의 고객만족센터,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전파
- 또한, 최근 협력기업의 돌발 사태로 인한 부품 공급의 어려움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, 부품 공급망 관리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. 끝

□ 추진 배경

-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,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등 품질경영환경이 변화
 - 품질활동 방향 제시, 우수 사례 보급 및 동향 전파 등을 통해 품질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
- 완제품의 품질은 많은 부품의 품질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품질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
 - ※ 1, 2, 3차 협력기업으로 이어지는 부품 공급망의 품질 관리는 완성품 제조회사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

□ 행사 주요 내용

- (포럼 ①) 상생협력 품질문화 정착을 위한 **국내의 품질석학 초청강연**
 - 일본의 상생품질 실태와 과제(일본 도쿄대학 카노 교수)
 - ※ 카노 교수(72세) : 카노모델(매력적 품질과 당연한 품질) 창시자로, ANQ(아시아 품질 네트워크) 회장 등을 맡고 있는 품질 전문가
 - 글로벌 기업의 상생 품질 모델(포항공대 김광재 교수)
- (포럼 ②) 국내 우수기업의 **품질협력 사례 발표 및 전문가 패널 토의**를 통해 성공적인 품질협력 추진전략 공유
- (포럼 ③)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품질책임자가 한 테이블에서 품질 전문가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**품질협력 과제 및 해결 방안 논의**
- (간담회) 국가품질정책 발표 및 **현장의 품질애로 등 의견을 수렴하여 품질 정책에 반영**(장관님 주재)
 - ※ 삼성전자, LG전자 등 국내 기업의 품질최고책임자(14명)

□ 행사 계획

- 행사명 : 『2011 Korea CQO Summit-상생품질전략 포럼』
- 일시/장소 : 2011. 5. 26(목), 09:30~16:00/ 리즈칼튼 호텔
- 참석자
 - Session I (포럼) : 모기업, 협력사 CQO(품질 최고 책임자) 등 약 250명
 - Session II (간담회) : 장관님, 기업 CQO 등 15명

□ 행사 세부 일정

일 시		내 용	비고
Session I (포럼)	09:30~10:30	■ 일본의 상생품질 실태와 과제	카노 노리아키 (일본 도쿄대학)
	10:30~11:30	■ 상생품질 성공사례 발표 - 삼성전자, GS리테일, 서부발전	기업
	11:30~12:30	■ 상생품질 성공 요소 공유	기업 품질실무자
	12:30~13:30	■ 중식	-
	13:30~14:30	■ 상생품질 정책 제안의 장	기업 품질실무자
	14:30~14:35	■ 격려사(포럼 참석자 대상)	최중경 장관
	14:35~16:00	■ 품질전략 발제 및 토론 ■ 발제강의 : 상생품질 모델 ■ 상생품질 전략 패널 토론 (기업, 학계, 정부 전문가 6명)	김광재 교수 (포항공대)
Session II (간담회)	14:35~15:30	■ 간담회 - 사진 촬영, 참석자 소개 - 업계 현황 및 건의사항 논의 - 마무리 말씀	안전품질정책과장 최중경 장관

〈참고1〉 해외 초청 인사

□ Kano Noriaki : 도쿄 대학 경영공학과 교수

○ 학력

- 도쿄대학 공대 학사
- 도쿄대학 공대 석사
- 도쿄대학 공대 박사



○ 경력 사항

- 도쿄 대학 경영공학과 교수
- ANQ(아시아 품질 네트워크) 회장
- 일본 품질관리학회 회장 역임(2000~2002)
- (재)일본과학기술연맹 이사
- ASQ(미국 품질 협회) Senior 멤버
- QC 서클 본부 간사

○ 수상 실적

- E Jack Lancaster Medal 수상(미국품질협회, 2002년)
- 테밍상(일본 국가품질상) 개인 부문 수상(1997년)
- 닛케이 품질관리문헌상 6회 수상

○ 활동 내용

- 카노(Kano) 모델 창시: 당연품질, 매력품질, 감동품질 등으로 고객 만족 요소를 구분하는 모델로, 제품개발방법론의 이론적 배경
- '매력적 품질과 당연한 품질' 등을 포함한 220편의 논문, 기술 보고
- 현상타파창조에의 길, 서비스산업의 TQC, TQC 용어 사전 등 40여건의 저서